◈며느리 권씨 열전 17-1

호랑이를 잡은 함양 열녀, 초계 정씨 정태일의 처 권씨부인

권씨열녀비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968-26, 내동마을 대로변 마을회관에 접하여 안동권씨열녀비(安東權氏烈女碑)가 서 있다.

정려(旌閭)는 별도의 정려각 없이 자연석 기단 위에 정려비를 세웠다. 정려비의 좌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 모양의 뚜껑돌을 올려 비를 보호하고 있다. 외부에는 기단의 침하를 막기 위하여 시멘트를 발라 놓았으며 정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쇠창살형 보호책을 쳐 놓았다. 비의 전면에는 '열녀학생정태일처안동권씨지려(烈女學生鄭泰一妻安東權氏之閭)'라고 새겨져 있다.

모양도 특이 하지만 보존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권씨는 39세에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권씨의 정려는 도로변에 있고 주변에는 민가가 있다. 주변의 민가가 단층 규모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경관상의 문제는 없으나 보호책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부식이 심하여 미관상 좋지도 않고 뭔가 손을 봐야 하는 지경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열녀라고 하면 보통 절개를 지킨 여인을 의미하여 주로, 남편 사후 순사(殉死)하거나, 정조를 지키려 죽음을 택하거나, 남편 사후 가정을 잘 일으킨 경우 등이나 이것은 매우 아주 특이한 사례이고 그 행적이 명백하지만, 그 남편이나 부인의 자세한 족보를 알지 못하여 다 같이 연구한다는 심정으로 소개한다.

윤용 (尹容 ·1708~1740) 의 호미를 든 여인과 정홍래 (鄭弘來 , 1720~?) 의 산군포효도

남편이 호랑이의 습격을 받아 죽음에 이르자, 밭을 매다가 호미로 대응하여 호랑이의 눈을 가격하였다는 것이다. 남편은 살고 자신은 죽었거나, 다 같이 죽었거나, 호랑이도 같이 죽었거나 하는 설이 여러 가지이나 일단은 그녀가 죽었기에 열녀가 되었다고 봐야하며 나중에 전설로 까지 내려오니 대단한 이야기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초계 정씨인 정태일(鄭泰一)의 처 권씨부인은 1756년(영조 32)에 태어났고 이웃 고을에서 혼인하였다. 1795년(정조 19) 남편이 호랑이에게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였을 때 권씨부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호랑이와 싸워 결국 호랑이를 때려 죽이고 본인도 숨졌다고 하며, 이 소식이 조정에까지 전해졌다. 1795년(정조 19)에 조정에서 정려를 내렸으나 당시 아들인 정한익(鄭漢翊)이 어려서 바로 세우지는 못하고 장성한 후 1832년(순조 32)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하원리 길가에 세워지게 되었다.

여기서 정태일에 대해서는 함양문화원 국장에게 문의하니 초계 정씨라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확인은 어렵고 다만 초계 정씨 대제학공학파 경산파 34世의 항렬이 태(泰)이니 그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 옆이 바로 유명한 초계 정씨의 심원정(尋源亭)이 있다. 조선시대의 중층 누각 건물로서 2005년 10월 13일 경남문화재자료 제382호로 지정되어 있다.

초계 정씨와 심원정(尋源亭)

초계 정씨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을 관향으로 하고 시조는 고려 문종 때 학자이며 예부상서(외무장관급)인 정배걸(鄭倍傑)이다. 그 후손인 거제현령(巨濟縣令)을 역임했던 돈암 정지영(鄭芝榮)이 후진을 양성하며 1558년에 현재보다 조금 더 상류인 덕추폭포 근처에 초가로 정자를 건립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어 후손들이 1770년에 다시 지었지만 풍수해로 다시 훼철되었다. 정지영의 7대손 정복운 등이 1845년에 현재의 위치에 재건하였고, 1948년에 중수를 거쳐 2018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함양 심원정 전경이다. 지우천 계곡의 제1담소인 청심담의 거북바위 위에 건립되어 있다.

덕유산을 뿌리로 하여 남으로 양 산맥이 내리뻗어 세 고을을 형성하였는데 중앙에 심진동(尋眞洞), 동편에 원학동(猿鶴洞), 서편에 화림동(花林洞)으로 이것이 안음삼동(安陰三洞, 안의삼동)이다, 이 고을에는 삼가승경(三佳勝景)이 있는데 심진동에는 심원정(尋源亭), 원학동에는 수승대(搜勝台), 화림동에는 농월정(弄月亭)을 말함이다.

심진동은 기백산군립공원 용추계곡의 관문으로 첫 경관이다. 정자가 서 있는 바위는 거북바위 즉 구암(龜岩)이요, 그 아래 소는 청심담(淸心潭)이며 건너에 포개진 바위는 농암(籠岩)이다. 바라보는 상류쪽엔 재궁폭포가 이곳에 합류한다.

초계정씨(草溪鄭氏)

초계정씨가 함양 지역에 처음으로 입향하는 것은 고려 우왕 대에 정전이 하동정씨 정지의(鄭之義)의 딸과 혼인하여 고을 북쪽 덕곡(德谷,덕암마을)에 자리 잡으면서부터이다. 정전의 아버지 정습인(鄭習仁)은 공민왕 대 과거에 합격한 후 전교령과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음사(淫祀,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배척한 일로 유명하다. 정전은 1377년(우왕 3) 국자시(國子試)에 합격하고 1381년(우왕 7) 문과에 급제한 후 조선 태종 때 좌사간대부를 지냈다. 세종 때는 보문각 직제학을 지내면서 은퇴를 요구하여 함양으로 내려와 살았다. 정전의 아들 정재안(鄭齊安)도 거창유씨 유환(劉懽,1337~1409)의 사위가 되어 황곡(黃谷)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영조 때는 정배걸의 후손으로 전하는 정동학(鄭東鶴)이 삼가(三嘉,합천 지역의 옛 지명)에서 들어와 고을 북쪽 개평(介坪,개평마을)에 자리 잡았으며, 헌종 때는 문간공 정온(鄭蘊,1569~1641)의 후손 정주학(鄭周學)이 거창에서 들어와 그 자손들이 월평(月坪)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現況'은 193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의 성씨'에서는 함양군의 초계정씨가 안의면 신안리에 39세대 규모의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은 것으로 소개하였다. 2000년의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초계정씨는 전국에 2만 9,264가구 9만 3,586명, 함양군이 106가구 279명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초계정씨가 전국에 10만 4,155명, 함양군이 218명으로 조사되어 2000년에 비하여 전국의 초계정씨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함양군은 6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함양군의 초계정씨는 수동면 상백리 상백마을, 지곡면 덕암리 덕암마을, 안의면 하원리 하비마을, 안의면 신안리 안심마을 등지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遺跡'으로는 초계정씨 종가에 전하던 '거창 초계정씨 종가 소장 고문서(居昌草溪鄭氏宗家所藏古文書)'는 1997년 1월 30일 경남유형문화재 제320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권씨는 과연 누구의 후손인가? 그 입향 경위로 추정하고져 하고 다음 회차에 그녀를 족보에서 찾아 밝혀보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글·권오철 기자

대전 유회당 종중 오찬연 개최

조선후기 영조 때 호조판서를 지낸 유회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 1668~1734, 추밀공파, 26世, 시호諡號 공민恭敏) 종중에서 2023年 8月 23日 대전지역 종원과 종친을 초청하여 종중 발전과 화합을 위한 오찬연(午餐宴)을 개최했다.

이날 유회당공 종중 권석원(權錫遠) 이사장과 권호준(權鎬俊) 자문위원회 의장과 권경원(權涇遠) 대의원회 의장이 종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로써 대전 참의공(叅議公) 종중 예하의 종중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었다.

권선준(權善準) 상임이사는 이날 오찬연의 사회자로서 참석자를 소개하였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안동권씨 대전종친회 권용기 회장, 참의공(叅議公, 19世, 권령權齡) 종중 권동원(權東遠) 이사장, 참의공 종중 대의원회 권충원(權忠遠) 의장, 탄옹공(炭翁公, 24世 권시權諰) 종중 권인순(權仁淳) 이사장, 대사헌공(大司諫公, 25世, 권기權愭) 종중宗中 권선유(權善宥) 이사장, 찬성공(贊成公, 25世, 권유權惟) 종중 권용제(權容濟) 이사장, 통덕랑공(通德郎公, 26世 권이정權以鋌) 종중 권종주(權琮周) 이사장, 사평공(司評公, 26世, 권이개權以鍇) 종중 권호일(權鎬一) 이사장, 통덕랑공(通德郎公, 26世, 진잠鎭岑 권이발權以鏺) 종중 권이원(權李遠) 이사장 등 각 종중 인원과 종친 30여 명과 본계 70여 명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유회당공 종중의 권경원(權涇遠) 대의원회 의장의 종원의 화합과 종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 제의에 이어, 자문위원회 권호준 의장은 임사말을 통해 자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자손의 도리라 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은 임사말을 통해 유회당공 종중은 자손이 번창하여 단일 종중으로서는 가장 많은 자손이 번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지역에서는 우리 안동권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오는 10월에 열리는 뿌리공원의 효문화축제에도 많은 기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동원 추밀공파 참의공종중 이사장

권영창 회장, 지도의 날 제정에 적극 참여

권오상 사무총장, 김선흥 전 외교관, 권영창 회장, 이연실 본부장, 권광택 상임위원, 권오수 부회장(왼쪽부터)

권영창 회장은 강리도 저자 김선흥 전 외교관과 이연실 한국이집트발전협회 글로벌 본부장의 내방을 맞이하여 권광택 상임위원과 권오수 부회장 및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행완 편집국장과 함께 지도의 날 제정 등에 대해 대담했다.

김선흥 저자는 9월 첫째 주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제정할 예정이라며 안동권씨 대종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권영창 회장은 강리도는 양촌 권근 선생의 발문이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지도라서 후손으로서도 대단히 영광스럽다. 그래서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안동권씨 1100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권광택 상임위원은 강리도 지도를 보면 깜짝 놀랄만하다. 이 귀중한 지도를 후손으로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민간단체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시스템을 만들어 홍보해야 한다. 그래서 대종회에서 지도의 날을 제정하는데 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활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수 부회장은 김선흥 저자가 강리도를 발견하고 그 위대성을 알아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흥 저자는 양촌 선생이 발문에 1402년이라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실 본부장은 처음 강리도를 보고 깜작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도 강리도를 모르고 국가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천하에 좋은 것도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 만드는 것은 30%이고 유통이 70%를 차지한다. 해외에 많이 알리고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 한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과도 연계하여 언어권별로 유투브도 만들고 해외에 알리는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흥 저자는 25일 지도의 날 제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이 지도의 날 제정 협의차 대종회를 방문할 예정이며 지도의 날 제정추진위원회에서는 첫 행사로 9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도의 날 선포식을 가지려고 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앞으로 지도의 날 제정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지도의 날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방문은 권광택 상임위원이 강리도에 대해 후손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누군가는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가 중화사상에만 찌들어 있었다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선조들은 1402년에 벌써 아프리카까지 세계를 바라보는 글로벌 감각과 원대한 세계관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후손들이 뒤늦게나마 깨달아서 널리 알리는 일은 후손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하여 저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주년 맞은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 다채롭게 열려

20년 활동 화보집 "나래시조 시조대중화운동 보고서" 발간

전국시조백일장 장원 여현순 전국시조낭송대회 대상 박찬현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권갑하 시인학교장과 참가자

신현국 문경시장 축사(왼쪽), 권갑하 시인학교장

'우리 민족시 시조를 읽고 쓰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고 있는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가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2일 문경새재 그랜드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 남기호 의원, 산림문학회 김선실 이사장, 문경문학관 권득용 관장, 김영우 국학연구회 이사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20주년을 맞은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 개최를 축하했다.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여름시인학교 활동 화보집 "나래시조 대중화운동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시인학교 활동의 의미를 권갑하 시인학교장께서 '여름시인학교 20년 성과와 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동안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신현국 문경시장과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 시노래가수 박제광, 알토란북스 대표 김홍준, 사기장 조선요 김영식 님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는 그동안 시조 창작 강좌를 중심으로 문경을 소재로 한 시조백일장 개최를 비롯해 문경예찬 시노래 뮤직비디오 10편 제작 등 99편의 시조를 현대가요로 작곡해 보급해왔다.

특히 시조 100편을 암송해 토너먼트 경연을 펼치는 전국시조암송경연대회는 중앙일보 문화면 전면 기사로 다뤄질 정도로 시조 암송 문화 확산에 기여해왔으며 시조 한 편을 예술적으로 낭송하는 전국시조낭송대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는 매년 150여명의 시인지망생과 시인들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우리 시조문학 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코로나로 올해까지는 당일 행사로 치렀지만 2024년도부터는 새로운 모델로 국민과 함께 하는 시조 보급운동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도 대회 입상자 및 나래시조 부문별 문학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문경예찬 시노래 공모 대상 오인택, 이서연 △전국시조백일장공모전 대학일반부 장원 여현순 학생부 이성표 이진표, △전국시조낭송대회 대상 박찬현, △제32회 나래시조문학상 김진길 △ 제5회 나래시조 젊은시인상 김종연, △제9회 올해의 단시조대상 이서연, △ 제4회 정석주시조문학상 신후식

김선길 산림문학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는 국내 유일의 우리 민족시 한여름 축제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특히 문경을 소재로 한 많은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후원을 하고 있는 문경시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갑하 시인학교장

제32회 나래시조문학상 수상자 김진길 시인과 권갑하 시인학교장

정정보도 2023년 8월 1일자 1면 대종회 명예회장 및 임원 위촉 선임 명단에서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상임위원	권기욱(우평코리아 회장)	권기욱(우평건설(주) 회장)
부회장(83명)	권영훈(법무법인 현빈 대표)	권영훈(세무법인 현빈 대표)
	권태석(뉴트호텔 회장)	권태석(뉴브호텔 회장)
항목	**부회장(83명)** 권경일(35세, 밀)~권흥식(37세, 부정)	**종무위원(64명)** 권경일(35세, 추밀)~권흥식(37세, 부정)